



하나님께서 10 년 전에 코피노 학생들을 만나게하시고,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친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며 선교교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10 년을 변함없이 조용히 섬기니 감사패로 보답해 주었습니다. 이들을 더 잘 섬겨야겠다는부담을 느낍니다. 천주교를 포함해서 이들을 돕는 단체나 후원자들은 많지만 매주 학생들을 선교교회로 인도해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선교사인 우리 부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 년 동안 변함없이 이 사역이 가능했던 것은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임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달 10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U.P 학생도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들이 꿈을 이루고 이 나라 필리핀에서 잘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새로운 가정이 선교교회에 더해져서 교회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척들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장지원선교사가 12 월 19 일 이명 치료를 위해 잠시 한국을 방문합니다. 기도부탁 드립니다.